

# 서산 부장리유적 백제 초두의 보존처리

정광용, \*송현정, 이수희, 임세진, 손경진, 백길환  
(한국전통문화학교, 충남역사문화원\*)

## Conservation of a Backje the tri-pod cauldron with handle from Bujang-ri Site in Seosan

Kwang Yong Chung, \*Hyun jung Song, Su hee Yi,  
Se Jin Lim and Kyung Jin Son

*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, ChungNam Institute of history and  
Culture\**

### 1. 머리말

초두(鑿斗)는 다리 셋에 자루가 달린 작은 냄비를 이르는 말이다. 술·음식·약 등을 끓이거나 데우는 데 사용했던 고급용기로 대부분 왕릉을 비롯한 큰 무덤에서 발견된다. 서산 부장리유적 발굴조사에서 분구묘 중 5호분에서는 철제초두가 출토되었다. 현재까지 출토된 초두가 대부분 청동제인데다 4-6세기 신라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철제이면서 백제시대 유물인 이 초두의 가치가 커진다. 본고에서는 부장리유적 백제 초두의 보존 처리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.

### 2. 초두의 예비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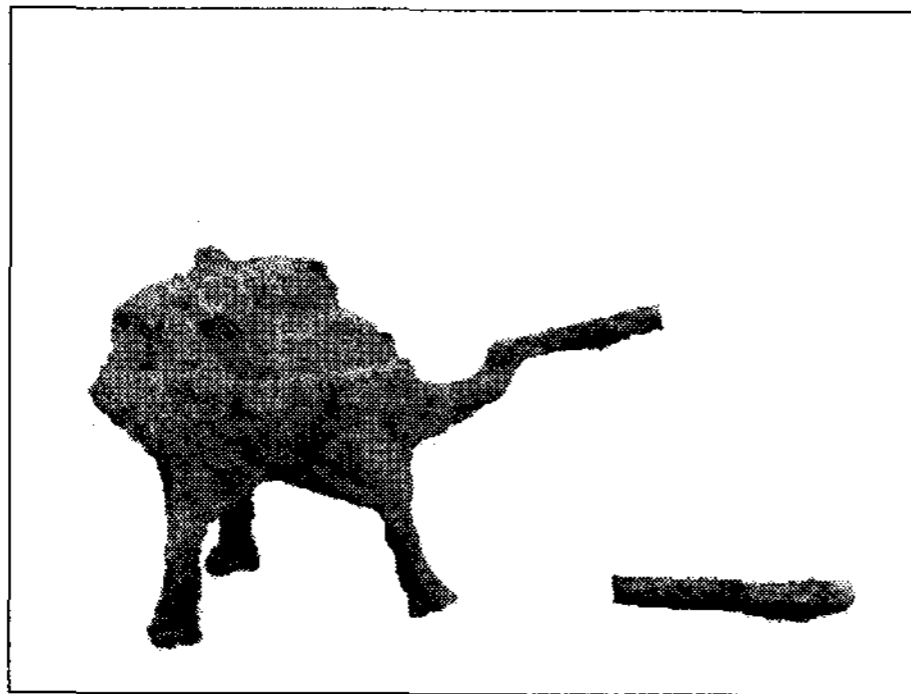
출토 당시 이 초두는 손잡이 부분이 파손되어 두 동강 나 있는 상태였다. 파손된 부위는 홈이 파여진 것처럼 공간이 있었는데 주조 당시의 기포로 추정되며 매장 상태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약해진 절단면 부위가 자연스럽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. 초두의 뚜껑은 경첩에서 분리된 채 약간 들뜬상태로 흙과 녹 등과 함께 초두 입구에 엉겨 붙어 있었다.

뚜껑에 구슬 형태의 꼭지가 붙어있고 꼭지 주위에 한 줄의 돌대가 꼭지를 둘러싸고 있다. 뚜껑은 주구의 반대쪽에 있는 경첩으로 몸체와 연결된다. 몸체는 일반적인 솥 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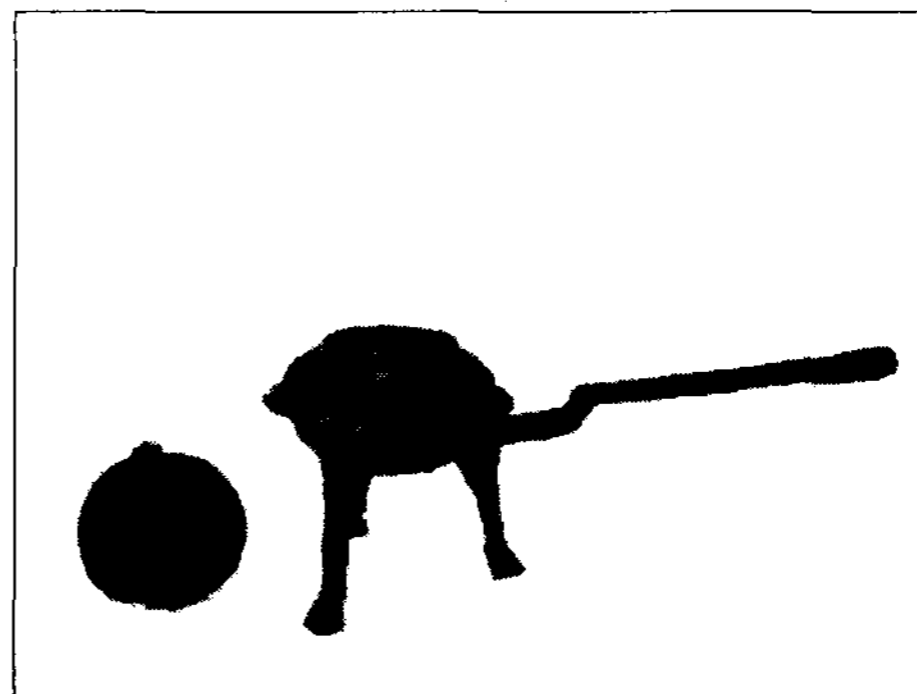
럼 등근 형태에서 입구로 갈수록 좁아진다. 또 몸체 중앙에는 돌기가 둘러져 있어 어딘가에 걸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. 일정한 간격으로 뻗어 있는 세 개의 다리는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바닥과 닿는다. 다리의 바닥면은 말발굽 형태로 바닥과의 접지력을 높인다. 몸체와 다리가 만나는 부위에서 뻗어나가는 손잡이는 곧게 나오다가 손잡이 전체의 약 1/4지점에서 한 번 꺾이고 다시 20cm 가량을 뻗는다. 손잡이를 잡을 때 네 손가락과 만나는 아랫면은 둥글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에 접하는 윗면은 폭이 일정하면서 편평하여 손잡이의 단면은 반원을 이룬다.

### 3. 초두의 보존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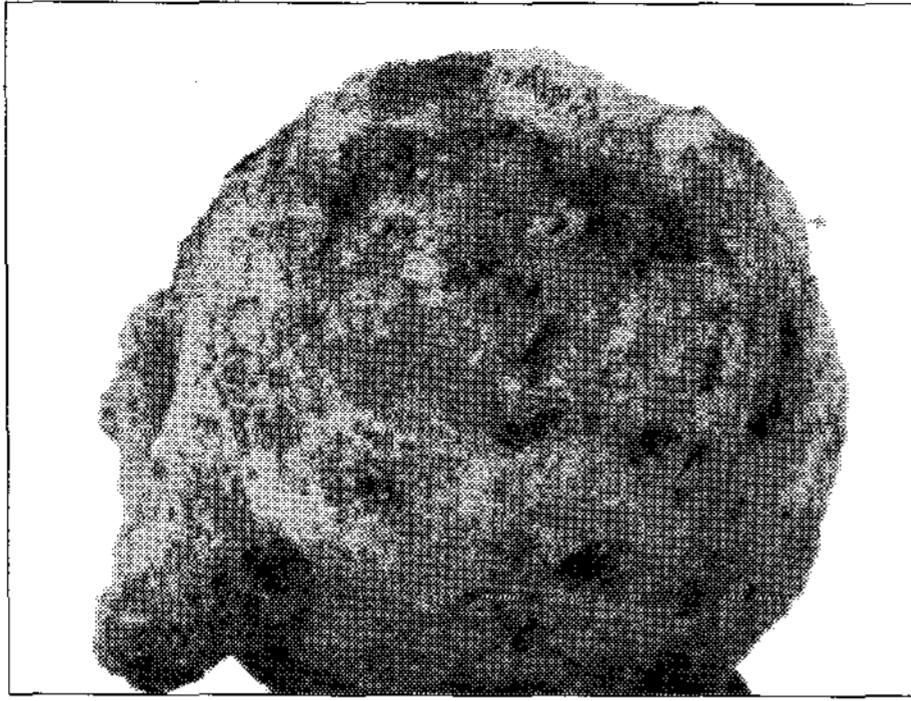
문헌조사, 처리전 기록, 사진촬영 등을 실시하여 초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한다. X선 투과촬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내부구조, 손상정도를 확인하고, 이미지를 복원하여 보존처리 시 활용한다. 철기유물 방청처리제인 KR-TTS를 사용하여 처리한다. 유물의 코팅·강화를 위해 아크릴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진공함침 시킨다. 분리된 편을 정확한 위치에 접합하고, 결손된 부분은 복원하여 유물의 원형을 찾아준다. 처리 중 발견한 사실, 처리과정 사진을 정리하여 자료로 남긴다.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입체적인 파일 자료로 활용·보존한다. 부식인자와의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진공밀폐포장을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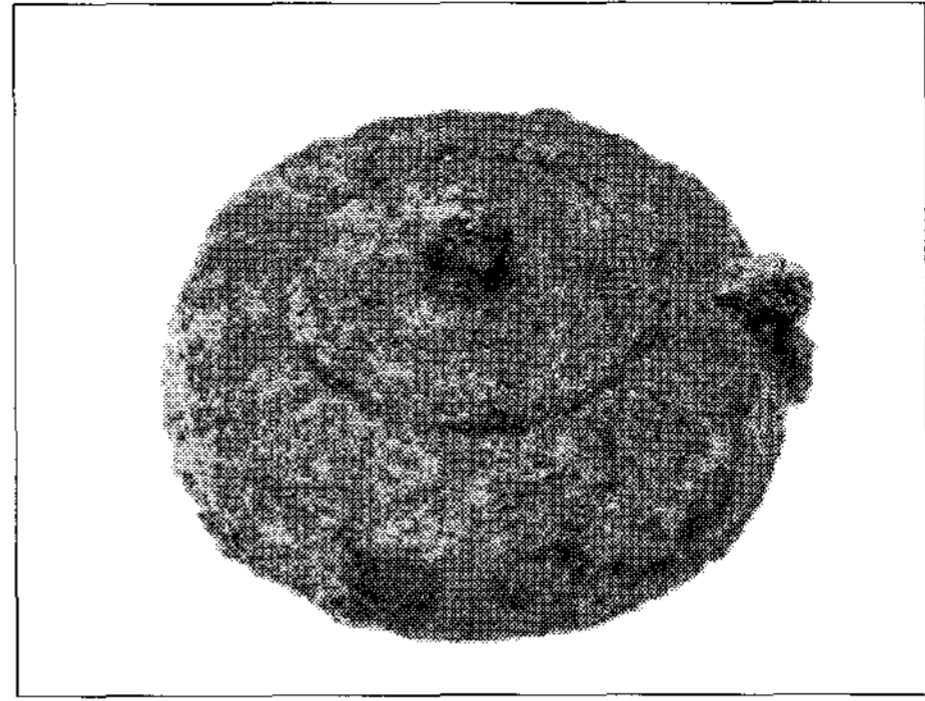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초두 처리전(전체)



[그림 2] 초두 처리후(전체)



[그림 3] 뚜껑 처리 및 분리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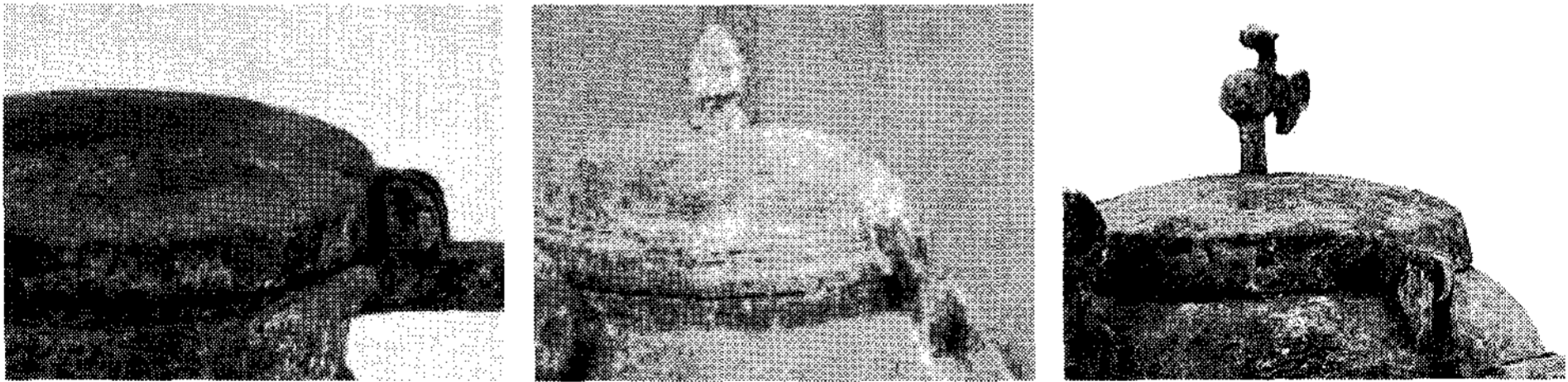


[그림 4] 뚜껑 처리 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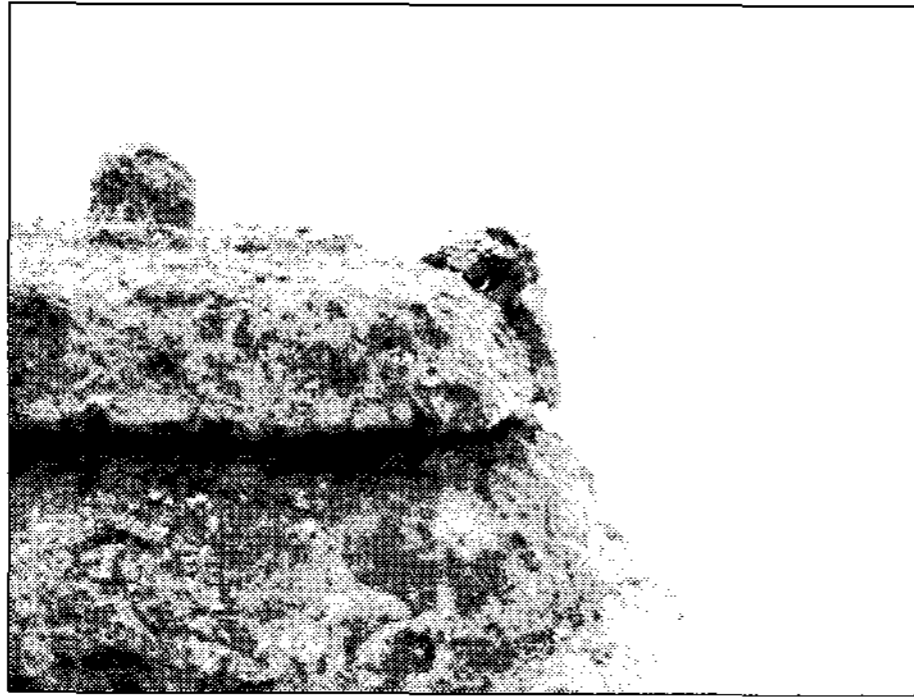
#### 4. 초두의 세부 구조

##### 4.1 뚜껑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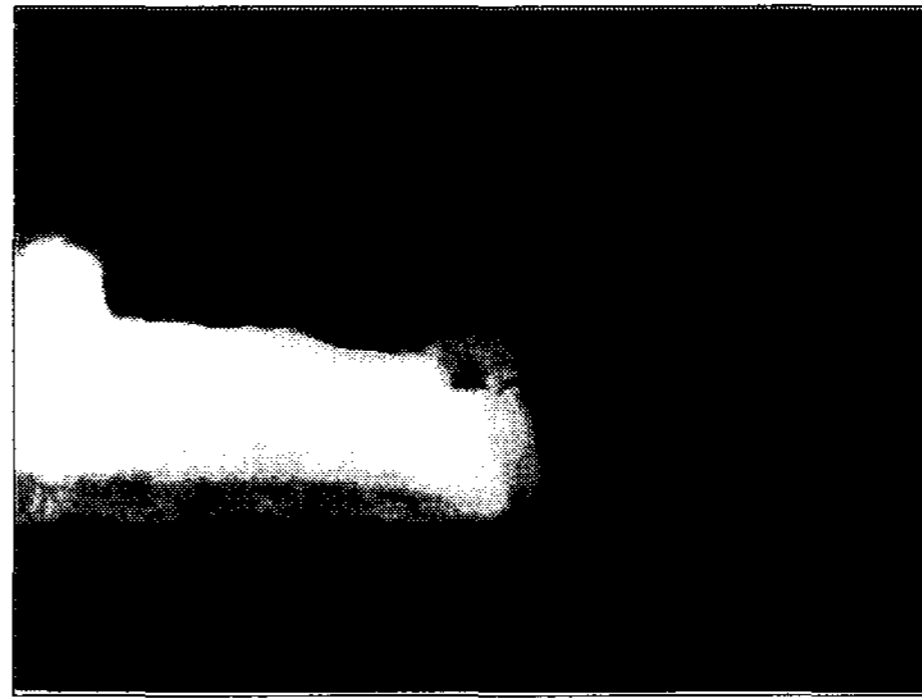
X선 촬영결과 뚜껑과 몸체를 이어주는 이음쇠 부분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. 이로 미루어 보아 뚜껑을 여닫을 수 있는 경첩으로 추정되는 장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. 그 방식은 여타의 초두와 같이 고리를 만들어 서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되나 이미 부식이 상당히 진행되어 보존처리 이후에도 정확한 연결방식을 파악하기 힘들다.



[그림 5] 다른 초두의 뚜껑 연결부 경첩 세부사진



[그림 6] 초두 뚜껑부 세부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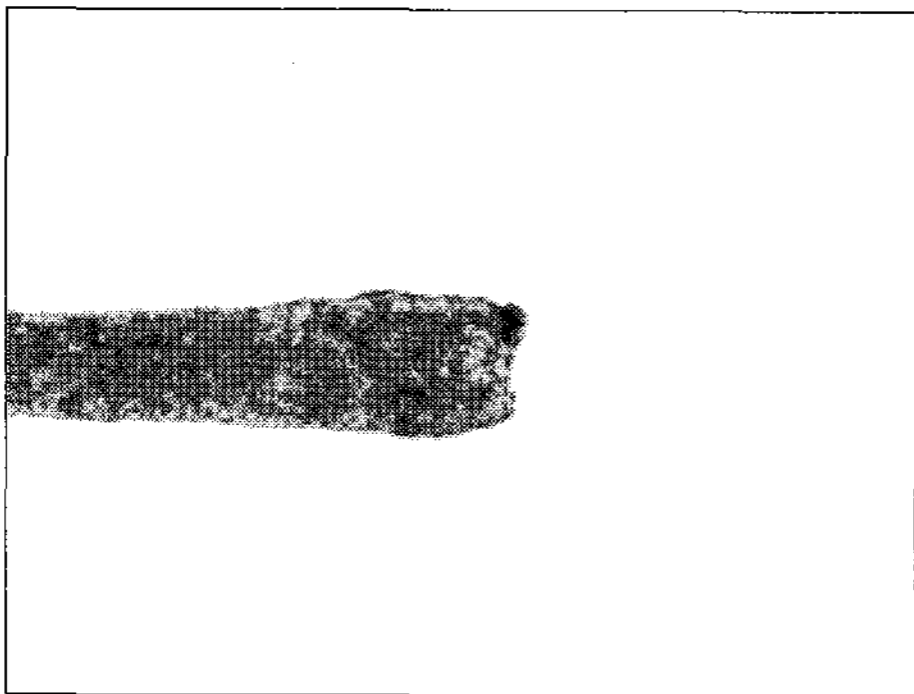


[그림 7] 초두 뚜껑부 X선사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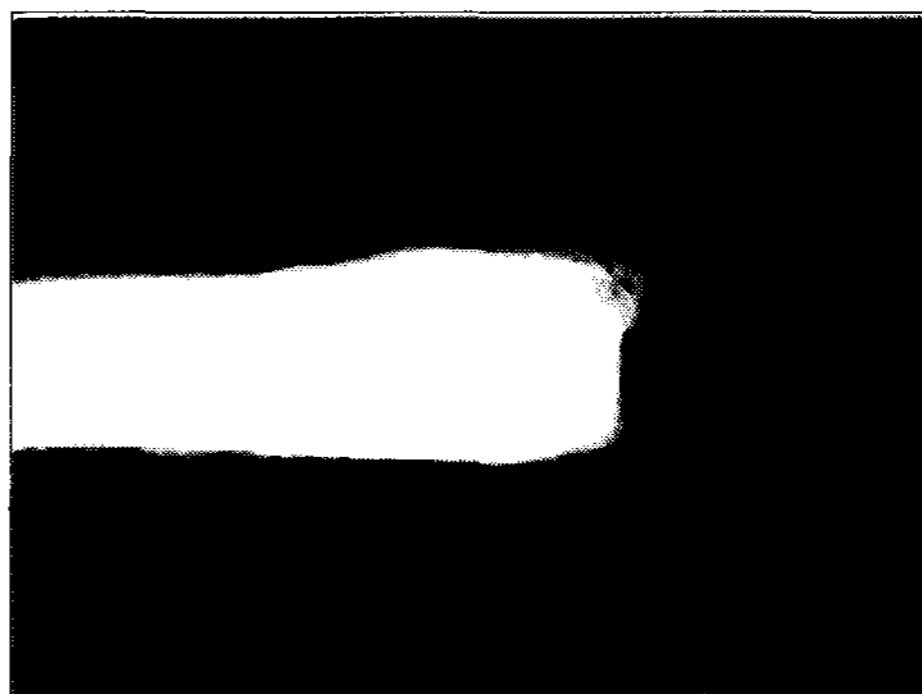
#### 4.2 자루부

초두가 출토될 당시 자루의 끝부분이 묻힌 주변에는 자루 장식이라고 추정되는 청동 편들이 흩어져 있었다. 따라서 초두 손잡이 끝부분에는 장식이 있고 그 장식을 연결하는 고리가 손잡이 끝부분에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다.

실제로 X선 촬영 결과 손잡이 끝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. 이 구멍에 장식끈 등을 매어 초두를 치장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.



[그림 8] 초두 끝 부분 세부사진



[그림 9] 초두 끝 부분 X선사진

### 5. 마무리

서산 부장리유적 출토 철제초두의 보존처리를 통하여 백제시대 초두의 원형과 약은 물론, 그 시대 제작기법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. 그러나 뚜껑과 몸체 부분을 이어주는 경첩부위의 정확한 형태과약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하고, 또한 주조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보존환경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.